

기혼 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몰입 유형화와 생활만족도*

Patterns of Commitment to Work Role and Fathering an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Married Men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 교 김 소 영

교 수 옥 선 화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Assistant : Kim, So Young

Prof. : Ok, Sun Wha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방법 |
|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고찰 | 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I. 연구문제 및 변수의 정의 | VI. 결론 및 제언 |
| | 참고문헌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different patterns of commitment to work role and fathering an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272 fathers, whose oldest child is under 12 years old with professional, managerial and clerical jobs, were select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Married men with the oldest child under 12 years old were more likely to be committed to fathering than to work role. 2) The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ed the level of commitment to fathering were the age of the oldest child,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the meeting after work, parental satisfaction, and how they perceive the spousal support. And the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ed the level of commitment to work role were type of job, parental distress, work satisfaction, work distress. 3) Patterns of commitment to fathering and work role wer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The names were given as positively balanced commitment pattern, positive fathering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ommitment pattern, negative fathering commitment pattern, and totally negative commitment pattern. 4) The significant variables important in classifying the patterns of commitment to work role and fathering appeared to be the age of the oldest child, work distress,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the meeting after work, parental satisfaction, how they perceive the spousal support, work satisfaction and weekend total working hour. 5) The balanced positive commitment to work and fathering was associated with the highest level of life satisfaction.

I. 문제제기

핵가족화, 기혼 취업 여성의 증가, 남녀간 평등한 관계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남성의 가족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남성의 역할을 대표하던 '부양자'역할의 상대적 중요성은 감소하면서 부모로서의 '양육자'역할, 남편으로서의 '배우자'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이숙현, 1996), 남성의 직업영역은 정체감을 확립하는 장소이며 생의 중심적인 영역으로, 반면 가족역역은 직업영역에서의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하는 안식처로 보고 있다(Barnett et al., 1992). 또한 남성의 가족역할은 경제적 부양자역할로 정형화되어 가족 밖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Cohen, 1993). 따라서 남성의 역할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직업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족역할은 도외시하여 왔다. 그러나 직업영역과 가족영역이 별개의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두 영역에서의 경험이 공유되고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Bolger et al., 1989; Staines, 1980), 남성의 직업역할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직업역할과 가족역할 간의 상호의존성과 공유영역에 대한 연구, 이 두 역할이 남성의 정신건강과 이들의 삶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Barnett et al., 1992; O'Neil &

Greenberger, 1994)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서구와는 달리 아직까지 국내의 연구는 남성들이 실제 가족역할을 어느정도 수행하며 그 관련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아버지역할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이성희·한은주, 1998; 조선희, 1998; 허선자, 1992).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남성들의 실제 아버지역할 수행 정도가 매우 낮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관련 변수들의 설명력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아버지역할 수행과 같은 행동적인 측면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아버지역할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서의 변화는 많은 연구(변화순 외, 1995; 이성희·한은주, 1998; 이숙현, 1995; 한경혜, 1997)에서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은 직업역할보다 가족역할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버지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친구같은 아버지"를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즉, 아버지역할에 대한 지각 수준은 높으나 실제 행동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 단계에서 '역할 몰입(role commitment)'은 남성의 직업역할과 아버지역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생각된다. 몰입은 특정한 역할에 대해 부과하는 개인적 중요성이나 가치 그리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자 개인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려는 자발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¹⁾(Amatea et al., 1986; Greenberger & O'Neil, 1993). 이는 역할

1) 몰입(commitment)에 대한 정의는 연구 분야와 학자에 따라 다르다. 연구에 따라 관여(involve), 우선성(salience), 중심성(centrality), 헌신(absorption), 기대(expectation) 등의 개념과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나, 이 연구에서는 역할 정체감 이론과 관련하여, 역할 몰입을 역할 수행을 예측하게 하는 전 단계로 보고자 한다(Stryker & Serpe, 1982).

정체감 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역할에 대한 몰입이 역할 정체감을 강화시키고, 그 역할과 관련된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점(Burke & Reitzes, 1991; Stryker & Serpe, 1982)에서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역할 정체감은 적절한 역할 행동에 대한 규범적 기대를 수반하며, 특정 역할에 대해 사회문화적으로 부여하는 의미와 규범을 보여주는 개념으로(Simon, 1992; Thoits, 1991), 한국 사회의 문화적 규범적 특성까지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동적인 변화는 미약하지만 많은 한국 남성들이 가족역할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경험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의식 세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행동을 예측하게 해주는 전 단계로서의 역할 몰입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동 자녀를 둔 기혼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직업역할 몰입과 아버지역할 몰입 수준에 따라 남성의 역할을 유형화하여, 오늘날 남성들이 직업역할과 아버지역할에 어느 정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 역할 몰입 유형의 특성과 생활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직업역할과 아버지역할이 남성들의 일상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남성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과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고찰

1. 남성의 직업역할과 아버지역할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 책임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의 정형화된 이미지와 정의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 남성의 직업역할은 부양자역할, 아버지역할과 동일시되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가족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도 경제적으로만 연결될 뿐, 양육과 관련된 부모역할은 어머니 역할과 동일시되고, 좋은 아버지는 좋은 부양자요,

부양을 잘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로 생각되었다(Cohen, 1993). 따라서 남성의 삶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직업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남성의 가족에서의 경험은 남성의 일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핵가족화, 기혼 취업 여성의 증가, 편부의 증가, 남녀 평등 사상의 확산 등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면서, 경제적 부양자 역할만이 아니라 가족영역에서 행하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스트레스 이론의 도입으로 남성이 직업영역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가족으로 유입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직업영역과 가족영역 사이의 상호 의존성과 공유영역에 대한 연구가 행해졌다(Bolger et al., 1989; Hughes et al., 1992). 이와 함께 아버지 역할에서의 경험들이 직업역할로부터의 좋지 않은 경험들을 완충할 수 있으며(Barnett et al., 1992; Greenberger & O'Neil, 1993), 남성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성인기에 성공적인 발달을 이루고 인성 변화도 가능하다는 연구들(Hawkins & Belsky, 1989; Hawkins et al., 1993)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한편 국내의 연구는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 관련 변인과 과정, 참여 정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이성희·한은주, 1995; 조선화, 1998; 허선자, 1992). 이러한 연구들은 남성들의 아버지역할 수행 정도가 매우 낮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는 경제적 부양자가 아닌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역할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변화순 외, 1995; 한경혜, 1997), 직업역할보다 가족역할에 우선순위를 둔다고(이숙현, 1995; 한경혜, 1998) 하였다. 즉, 아버지역할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실제 수행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아버지 역할과 관련하여 공유하는 규범이나 가치, 믿음과 같은 아버지 문화(culture of fatherhood)가 아버지 역할 수행(conduct of fatherhood)에 비해 더 빨리 변화한다는 LaRossa(1988)의 논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의 아버지역할에 대한 불분명한 규범, 사회적·도덕적 구속력 결핍, 현존하는 부양자 역할의 요구와 그들의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인 요구 사이의 갈등(Daly, 1993),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로 대변되는 직업구조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역할 몰입의 개념

학자에 따라 역할 몰입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Burke & Reitzes, 1991; Greenberger & O'Neil, 1993; Marks, 1977), 특정한 역할에 대해 부과하는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가치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개인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려는 자발성으로 종합하여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몰입은 정체성 이론에서 나온 개념이다. 정체성(identity)은 개인이 사회구조 속의 역할 관계에 참여할 때 존재하는 내면화된 지위로,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 역할은 덜 규범적인 역할보다 위계에서 상위에 있다(Stryker & Serpe, 1982; Thoits, 1991)고 한다. Marks(1977)는 몰입을 체계로 보아야 하며, 그 체계는 특정한 사회, 집단, 계층, 성에 따라 문화적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즉, 역할, 정체성, 몰입의 개념 모두 사회문화적인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역할 몰입은 행동의 전단계로서 역할 수행을 예측할 수 있게 하며(Burke & Reitzes, 1981; Stryker & Serpe, 1994), 특정 역할에 대한 몰입을 통해 역할로부터의 의미, 목적, 만족감을 얻고 자존감이 향상되는 등의 심리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Reitzes & Mutran, 1994; Simon, 1992). 이러한 역할 몰입의 세 측면을 고려할 때, 역할 몰입은 다양한 이데올로기, 사회적 기대와 규범이 혼재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잘 반영함과 동시에 미래의 역할 수행을 예측하게 해 주는 등 한국의 남성 역할 연구에서 유용한 개념으로 활용되리라 예측된다.

3. 역할 몰입 유형 관련 변수

1) 사회인구학적 변수 : 역할 몰입 유형화와 관련이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첫자녀 연령, 자녀 성별, 자녀수, 부인 취

업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연령을 개인과 사회, 역사를 연결시키는 매개체(Elder, 1987)로 볼 때, 개인이 성장한 환경의 지배적인 규범과 가치에 따라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에 대한 몰입 정도가 다를 것이다. 교육수준과 월평균 소득의 영향은 일관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고학력일수록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직업 특성과 연관되어 역할 몰입 유형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남성의 가족역할 수행에 대한 연구들은 월평균 소득이 부인과의 역할 협상 과정에서 자원으로 작용하여, 남성의 아버지역할 참여를 방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양호, 1997; 장미나, 1994). 첫 자녀 연령, 자녀수, 자녀 성별은 아버지역할의 결정 변인으로 작용하여 역할 몰입 유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인의 취업은 남성의 가족역할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상황변인으로 여겨지지만(김양호, 1997; Crouter et al., 1987; Volling & Belsky, 1991), 국내에서는 오히려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 남성의 아버지역할 수행이 더 낮거나(이기영 외, 1994), 부인의 취업 여부와 아버지역할 수행과는 상관이 없다는 연구들(이성희·한은주, 1998; 전춘애·박성연, 1996)이 있어, 부인의 취업 여부가 남성의 역할 몰입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 시간 관련 변수 :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자원이며 양적인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할 수행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이기영 외, 1994).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 직업역할과 아버지역할이 경쟁적인 관계에 있으므로(한경혜, 1998; O'Neil & Greenberger, 1994), 장시간 노동과 직장 이후의 술자리나 모임으로 연장되는 직업역할에 의해 하루 대부분이 점령(이현아, 1994; 한경혜, 1998)되어 있는 한국 사회 남성들에게 시간이라는 변수는 역할 몰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과중한 업무량과 긴 근무시간을 아버지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하고 있다(이성희·한은주, 1998; 이숙현, 1995, 1997). 그러므로 주중 근무시간, 주말 근무시간, 퇴근 후 모임 참석 회수, 평일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시간 관련 변수들

과 역할 몰입과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3) 역할 경험 관련 변수 : 남성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역할에서 경험하게 되는 만족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경험들이 아버지역할 행동을 촉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강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이미 밝히고 있으며(이성희·한은주, 1998; 장미나, 1994; 조선휘, 1998; 허선자, 1992; Barnett et al., 1992; Greenberger & O'Neil, 1993, 1994; Grossman et al., 1988; Levy-Schiff & Israelashvili, 1988),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 역할에서의 경험이 다른 역할에의 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Bolger et al., 1989; Hughes et al., 1992; Small & Riley, 1990; Staines, 1980; Voydanoff, 1988). 또한 남성은 아버지역할과 관련된 신념이나 태도, 관점 등에서 부인에게 배우의존적이며, 부인으로부터의 격려와 지원이 있을 때 아버지역할 수행이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Daly, 1993; Grossman et al., 1988; Simons et al., 1990). 따라서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에서 경험하는 만족과 스트레스, 자신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대한 본인의 평가 정도, 부인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지각 수준과 같은 역할에서의 경험들이 역할 몰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4. 역할 몰입 유형과 생활만족도

남성의 역할을 유형화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Marks(1977), O'Neil과 Greenberger(1994)의 연구가 있다. Marks(1977)는 모든 역할에 대해 똑같이 긍정적으로 균형잡힌 몰입 체계, 똑같이 부정적인 몰입 체계, 과도한 몰입과 과소한 몰입 체계 중에서 긍정적으로 균형잡힌 몰입 체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Marks와 MacDermid(1996)는 이러한 논의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역할간의 균형을 이룰수록 복지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O'Neil과 Greenberger(1994)는 직업역할과 부모역할 몰입 유형에 따른 역할 긴장을 측정된 결과, 직업역할 몰입이 낮고 아버지역할 몰입이 높은 경우에 역할긴장이 가장 낮았고, 직업역할에는 많이 몰입하지 않으나 아

버지역할에는 많이 몰입한 유형이 그 반대의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역할긴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몰입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직접 측정한 연구는 없으나, 역할 몰입 유형에 따라 역할긴장이나 심리적 복지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볼 때, 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몰입 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다를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III. 연구문제 및 변수의 정의

1. 연구문제

- 1) 영유아동기 자녀를 둔 기혼 남성의 아버지역할 몰입과 직업역할 몰입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2) 영유아동기 자녀를 둔 기혼 남성의 역할 몰입은 아버지역할 몰입과 직업역할 몰입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 3) 영유아동기 자녀를 둔 기혼 남성의 역할 몰입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는 제 변수들(사회인구학적 변수, 시간 관련 변수, 역할 경험 관련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4) 영유아동기 자녀를 둔 기혼 남성의 역할 몰입 유형별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변수의 정의

1) 직업역할 몰입: 선행연구(Amatea et al., 1986; Greenberger & O'Neil, 1993)를 참고로, 직업역할에 대해 부과하는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가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려는 자발성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2) 아버지역할 몰입: 선행연구(Amatea et al., 1986; Greenberger & O'Neil, 1993)를 참고로, 아버지역할에 대해 부과하는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가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려는 자발성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3) 직업역할 만족: 선행연구(장미나, 1994; 허선자, 1992)를 참고로, 직업을 통한 보람과 직무에 대한 흥

미, 직업 안정성,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와 보수, 능력 발휘에 대한 만족 정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4) 직업역할 스트레스: 선행연구(조은숙, 1997; 한경혜, 1998)를 참고로, 직업역할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평가, 직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업무의 양적·질적 부담으로 인한 부담감과 근무시간에 대한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5) 아버지역할 만족: 선행연구(현온강·조복희, 1994)에 따라 아버지역할에 대해 지각된 만족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평가와 만족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6) 아버지역할 스트레스: 선행연구(김기현·강희경, 1997; 현온강·조복희, 1994)의 정의를 참고로, 아버지 역할 스트레스를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불안감,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감과 직업 역할로 인하여 아버지 역할이 방해받는다 느끼는 정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7) 생활만족도: Campbell 등(1976)의 정의에 따라 생활만족도를 현재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나 평가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IV.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첫 자녀의 연령이 0세에서 12세 이하이며,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화이트칼라 직종(전문직, 행정·관리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혼 남성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절차는 1999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1999년 9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34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고 최종적으로 27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중회귀 분석,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과 다중범위검증,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1) 직업역할 몰입 척도: Greenberger, Payne 과 Goldberg(1988)가 개발한 '직업역할 몰입 척도(Work Commitment Scale)' 총 17문항 중 11문항을 한국 문화에 맞게 일부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였다(Cronbach $\alpha = .76$).

2) 아버지역할 몰입 척도: Greenberger, Payne 과 Goldberg(1988)가 개발한 '부모역할 몰입 척도(Parental Commitment Scale)' 총 17문항 중 11문항을 한국 문화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였다(Cronbach $\alpha = .68$).

3) 직업역할 만족 척도: 김경동(1970), 장미나(1994)의 직업 만족도 척도에서 직업을 통한 보람, 직무에 대한 흥미, 보수에 대한 만족, 동료관계의 질, 직장에서의 능력 발휘에 관한 5문항을 선정하고 전반적인 직업 안정성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여 총 6문항으로 된 척도를 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78$).

4) 직업역할 스트레스 척도: 조은숙(1997)의 척도를 참고로 직업의 전반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업무의 양적·질적 부담 정도, 근무시간의 융통성을 묻는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70$).

5) 아버지역할 만족 척도: 현온강·조복희(1994)의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를 참고로 아버지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만족을 묻는 총 5문항으로 된 척도를 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68$).

6) 아버지역할 스트레스 척도: 선행연구(김기현·강희경, 1997; 현온강·조복희, 1994)를 참고로 부모로서의 유능감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 자녀에 대한 부담감,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감, 직업 역할로 인한 아버지 역할의 방해 등을 묻는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72$).

7) 생활만족도 척도: Campbell 등(1976)이 구성한 자신의 삶의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측정하는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Cronbach $\alpha = .93$).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도 높아졌음을 지적하는 국내외의 연구들(한경혜, 1998; 허선자, 1992; Reitzes & Mutran, 1994; Thoits, 1992)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30대 남성들의 특성이 부각된 결과일 수 있다.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성장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집 단	빈도(%)	변 수	집 단	빈도(%)
연령 (n=267)	30세 미만	9(3.4)	부인 취업 여부 (n=272)	비취업	182(66.9)
	30-34세	92(34.4)		취업	90(33.1)
	35-39세	114(42.7)	부인 교육 수준 (n=267)	고졸 이하	83(31.1)
	40세 이상	52(19.5)		초대졸·대졸	165(61.8)
교육 수준 (n=267)	고졸 이하	44(16.5)	대학원 졸	19(7.1)	
	초대졸·대졸	182(68.1)	가족 유형 (n=272)	핵가족	214(78.7)
	대학원 졸	41(15.4)		확대가족	58(21.3)
월평균 소득 (n=272)	200만원 미만	73(26.9)		부모 동거	42(72.4)
	200-300만원	96(35.3)		장인·장모 동거	9(15.5)
	300-400만원	73(26.8)	기타(형제, 처남/ 처제, 조부모)	7(12.1)	
	400-500만원	19(7.0)	결혼 지속 년수 (n=272)	5년 미만	73(26.8)
500만원 이상	11(4.0)	5년-9년		108(39.7)	
자녀수 (n=268)	1명	117(43.7)		10년-14년	72(26.5)
	2명	142(53.0)	15-20년	19(7.0)	
	3명	9(3.3)	직업 경력 (n=272)	10년 미만	47(17.3)
첫 자녀 연령 (n=267)	전학령기(0세-6세)	150(56.2)		10-20년	158(58.1)
	학령기(7세-12세)	117(43.8)		20년 이상	67(24.6)
첫 자녀 성별 (n=267)	남성	151(56.6)	직업유형 (N=267)	전문직	74(27.7)
	여성	116(43.4)		행정 및 관리직	43(16.1)
				사무직	150(56.2)

2. 역할 몰입의 전반적 경향

<표 2>와 같이 직업역할 몰입의 평균 점수는 중간값보다 낮고 아버지역할 몰입의 평균 점수는 중간값보다 높다. 이와 같은 역할 몰입의 전반적인 경향은 한국 사회의 기혼 남성들이 아버지역할보다는 직업역할에 더 몰입되어 있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남성들이 직업역할보다 가족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책임을 느끼며, 아버지역할에 대한 지각 수준

며, 가족의 생계 부양자로서의 권위적인 아버지역할보다는 친근하고 양육적인 아버지 역할이 강조되는 의식의 변화를 몸소 경험한 세대이다(이숙현, 1995; 조선화, 1998; 허선자, 1992). 또한 첫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이하이므로,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양육활동, 놀아주거나 숙제를 도와주는 등의 아버지 역할 수행이 요구되는 생활주기상의 단계에 속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2〉 역할 몰입의 전반적 경향

변 수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 분포 범위 (중앙값)	응답 가능한 범위 (중간값)
아버지 역할 몰입	34.74	4.36	21-50(35)	11-55(33)
직업 역할 몰입	32.32	5.82	15-48(33)	11-55(33)

3. 역할 몰입 유형화

1) 역할 몰입 유형 집단 설정

남성의 역할 몰입 유형화를 위하여 아버지역할 몰입과 직업역할 몰입의 두 차원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으며(표 3),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높다.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이 직업역할에 의해 우선적으로 점령되어 있는 한국의 직업구조 현실을 고려할 때,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에 같은 수준으로 깊이 몰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직업역할 몰입 점수가 아버지역할 몰입 점수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은 자연스런 결과일 것이다. 즉 직업역할에 가치와 중요성을 두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아버지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이상적인 아버지상의 대표적인 유형으

〈표 3〉 역할 몰입 유형별 빈도 및 표준화된 점수

집단	빈도수	아버지 역할 몰입	직업 역할 몰입	점수 부호
1	88	0.50063	0.83345	++
2	78	-0.97327	0.37680	-+
3	53	1.15430	-0.85572	+-
4	53	-0.55318	-1.08266	--

〈표 4〉 역할 몰입 유형별 두 차원 점수의 일원분산분석

차 원	집단(빈도)	평균	F 값	DMR-test
아버지 역할 몰입	1(88)	36.92	185.08 ***	a
	2(78)	30.49		b
	3(53)	39.77		c
	4(53)	32.32		d
직업 역할 몰입	1(88)	37.17	158.04 ***	a
	2(78)	34.51		b
	3(53)	27.34		c
	4(53)	26.02		d

*** p<.001

2) 역할 몰입 유형의 명칭

유형 1은 두 차원의 표준화된 점수가 모두 '+, +'의 값을 갖는 유형으로, 직업역할 몰입은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높고 아버지역할 몰입도 유형 3 다음으로

로, 이 유형을 '균형잡힌 몰입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가장 많다. 유형 2는 아버지역할 몰입과 직업역할 몰입의 표준화된 점수가 각각 '-', '+'의 값을 갖는 유형으로, 아버지

역할 몰입이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낮으나, 직업역할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의 몰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은 직업역할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역할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려 하지만, 아버지역할에는 무관심한 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을 '아버지 역할 무관심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 유형은 전체 사례의 28%를 차지한다. 유형 3은 아버지역할 몰입과 직업역할 몰입의 표준화된 점수가 각각 '+, -'의 값을 갖는 유형으로, 아버지역할 몰입 점수는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높으며 직업역할 몰입은 유형 4 다음으로 낮다. 즉 아버지역할에 매우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아버지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나, 직업역할에는 거의 무관심한 형이다. 개인이 직업에 대한 몰입을 철회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강한 몰입을 할 수 있다는 회소성의 원리(Bailyn, 1978, Bielby & Bielby, 1989에서 재인용)가 잘 나타나는 유형이며, 우리나라 직업구조 현실상 직업역할에 대한 몰입을 철회함으로써만 아버지역할에 강하게 몰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유형을 '아버지 역할 몰입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 유형이 전체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이다. 유형 4는 두 차원의 표준화된 점수가 모두 '-', '-'의 값을 갖는 유형으로, 직업역할 몰입은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낮으며, 아버지역할 몰입도 유형 2 다음으로 낮다. 두 차원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이 유형을 '전반적 무관심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 유형이 전체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이다.

3) 역할 몰입 유형 판별 기여도

네 개의 역할 몰입 유형으로 분류할 때 아버지역할 몰입과 직업역할 몰입의 두 차원이 보이는 상대적인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함수 1의 판별 설명력은 54.38%이고, 함수 2의 판별 설명력은 45.62%로 나타났다(표 5). 함수 1을 설명하는 변수가 아버지역할 몰입이고, 함수 2를 설명하는 변수는 직업역할 몰입이므로, 역할 몰입 유형 분류에서 아버지역할 몰입의 기여도가 직업역할 몰입의 기여도에 비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표 6).

〈표 5〉 두 차원에 대한 판별함수의 유의도

함수	고유값	설명 변량	정준 상관	유의도
1	2.0862	54.38	.822181	.000
2	1.7500	45.62	.797725	.000

〈표 6〉 두 차원에 대한 판별계수

변 수	함수 1	함수 2
아버지 역할 몰입	.97162	.23871
직업 역할 몰입	-.20750	.97876

7. 역할 몰입 유형의 판별 요인

1) 판별함수의 구성

역할 몰입 유형의 차이를 설명할 변수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판별방식(stepwise)을 통해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직업역할 만족, 아버지역할 만족, 주말 근무 시간, 첫 자녀 연령, 직업역할 스트레스, 배우자의 평가에 대한 지각, 퇴근 후 모임 참석 회수의 7개 변수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추출된 세 개의 판별함수 중 함수 1, 함수 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함수 1에 의해 집단이 가장 잘 분류되어 집단 분류의 53.78%를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함수 2가 43.6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판별함수의 유의도

함수	고유값	설명 변량	정준상관	유의도
1	.3057	53.78	.483855	.0001
2	.2482	43.67	.445901	.0001
3	.0145	2.55	.119520	.5862

함수 1을 설명하는 변수들은 첫 자녀 연령, 직업역할 스트레스, 배우자의 평가에 대한 지각, 퇴근 후 모임 참석 회수로 나타났으며, 함수 2를 설명하는 변수들은 직업역할 만족, 아버지역할 만족, 주말 근무

〈표 8〉 각 변수의 표준 판별계수

변 수	함수 1	함수 2
첫자녀 연령	-.6226	-.2363
직업역할 스트레스	-.3982	.3182
배우자의 평가에 대한 지각	.4465	-.0879
퇴근 후 모임 참석 회수	.2581	.2103
직업역할 만족	-.3181	.8348
아버지역할 만족	.2517	.4055
주말 근무 시간	.1423	.2273

시간으로 나타났다(표 8). 이처럼 통계적으로 집단 판별력이 있는 독립변수가 2개의 독립변수군으로 묶여 집단 분류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집단 중심값의 해석

각 함수가 어떠한 유형을 구별하는 데 더 유용한지를 함수별 집단 중심값을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표 9). 함수 1에서는 아버지역할 몰입형(.88)과 아버지역할 무관심형(-.71)의 거리가 가장 멀게 나타나, 첫 자녀 연령, 직업역할 스트레스, 배우자의 평가에 대한 지각, 퇴근 후 모임 참석 회수 등의 변수는 아버지역할 몰입형과 아버지역할 무관심형을 구분하는 데 유용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함수 2에서는 균형잡힌 몰입형(.66)과 전반적 무관심형(-.63)의 거리가 가장 멀게 나타나, 직업역할 만족, 아버지역할 만족, 주말 근무 시간등의 변수는 균형잡힌 몰입형과 전반적 무관심형을 구분하는 데 유용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9〉 각 함수의 집단중심값

집 단	함수 1	함수 2
균형잡힌 몰입형	-.0297	.6656
아버지역할 무관심형	-.7100	-.2523
아버지역할 몰입형	.8791	-.0993
전반적 무관심형	.2210	-.6352

8. 역할 몰입 유형별 특성

각 유형의 특성은 〈표 10〉과 같다. **균형잡힌 몰입**

형은 전체의 32%를 차지하며, 이 유형에 속한 남성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직업역할과 관련된 특성들이 두드러진다. 토요일 근무시간이 가장 길고, 직업역할 만족과 직업역할 스트레스도 네 유형 중에서 가장 높다. 아버지역할 만족은 아버지역할 몰입형 다음으로 높고, 첫자녀의 평균 연령은 5.9세이다. 배우자의 평가에 대한 지각은 중간 수준으로 아버지역할 몰입형에 비해서는 낮으며 퇴근 후 모임에 참석하는 회수는 거의 참석을 안 하거나 한달에 2-3번 이내로 참석하는 경우가 과반수였다. **아버지역할 무관심형**은 전체의 29%를 차지하며, 이 유형은 아버지역할 몰입형과 반대되는 특성을 갖는다. 첫자녀의 평균 연령은 8세로 가장 높으며, 아버지역할 만족, 배우자의 평가에 대한 지각 모두 가장 낮다. 직업역할 스트레스나 직업역할 만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토요일 근무 시간이 5.8시간으로 네 유형 중에서 가장 적다. 또한 퇴근 후 모임에 참석하는 회수도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씩, 많게는 4번 이상 참석하는 경우가 과반수로 퇴근 후 모임 참석 회수가 비교적 많은 집단이었다. **아버지역할 몰입형**은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이 유형은 아버지역할과 관련된 변수들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즉, 첫자녀 연령은 가장 낮고, 아버지역할 만족, 배우자의 평가에 대한 지각 모두 네 유형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토요일 근무 시간은 낮은 수준이며, 퇴근 후에 모임에 참석하는 회수가 한달에 두세번 이하인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전반적 무관심형**은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이 유형은 역할과 관련된 정서적 경험 변수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즉 직업역할 만족, 직업역할 스트레스, 아버지역할 만족, 배우자의 평가에 대한 지각 점수 모두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직업역할 만족은 네 유형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9. 역할 몰입 유형별 생활만족도의 차이

생활만족도는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0). 균형잡힌 몰입형의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가장 높았고 전반적 무관심형의 생활만족도가 유의

〈표 10〉 역할 몰입 유형별 설명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변수	집단	균형잡힌 몰입형	아버지 역할 무관심형	아버지 역할 몰입형	전반적 무관심형
첫자녀 연령		5.89 (3.55)	8.03 (4.37)	4.47 (3.41)	6.13 (4.29)
직업 역할 스트레스		13.98 (2.58)	13.83 (2.29)	12.65 (2.78)	12.83 (2.84)
배우자의 평가에 대한 지각		3.13 (0.97)	2.65 (0.96)	3.39 (0.83)	3.08 (0.96)
퇴근 후 모임 참석 회수 ^{주)}		0.64 (2.70)	0.45 (0.50)	0.73 (0.45)	0.54 (3.08)
직업 역할 만족		21.74 (2.98)	20.08 (3.03)	18.82 (3.54)	18.30 (3.77)
아버지 역할 만족		19.94 (2.10)	18.46 (2.43)	20.39 (2.19)	18.72 (2.60)
주말 근무 시간		6.36 (2.70)	5.75 (2.79)	5.94 (2.72)	6.13 (3.08)

주) 퇴근 후 모임 참석 회수는 가변수 처리된 변수로, 일주일에 1회-4회 이상 퇴근 후 모임에 참석하여 '자주' 참석하는 경우에는 0의 값을, 한달에 3회 이내로 참석하여 '가끔' 참석하는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였다.

하게 가장 낮았다. 특히 균형잡힌 몰입형과 아버지 역할 몰입형에 속한 남성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버지역할에 대한 많은 투자와 만족이 남성의 정서적 만족에 중요하며, 직업역할에서의 부정적인 경험들에 대해 완화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Barnett et al., 1992; Greenberger & O'Neil, 1993)와 일치하였고, 직업역할에는 그다지 몰입하지 않으나 부모역할에 많이 몰입한 유형이 그 반대의 유형에 비해 역할 긴장이 낮다고 한 O'Neil과 Greenberger (199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균형잡힌 몰입형에 속한 남성들의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는,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역할에 대해 긍정적이고 균형잡힌 몰입을 할 경우 역할긴장이 최소화되고 복지감이 증가한다는 Marks(1977)의 논의를 지지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영유아동기 자녀를 둔 기혼 남성은 직업역할에 비해 아버지역할에 더 몰입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이 직업역할에 깊이 몰입되어 있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로, 영유아동기 자녀를 둔 30대 남성 집단의 가족생활주기 단계상의 특성과 직업환경 특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역할 몰입에 대해 당위적인 응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남성들이 아버지역할에서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이성희·한은주, 1998; 이숙현, 1995; 한경혜, 1997, 1998; 허선자, 1992)의 일관된 보고를 근거로, 우리 사회의 남성들이 실제로 아버지역할에 대해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하고 아버지역할을 잘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는 있으나, 여러가지 규범과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그러한 변화가 아직까지 행동으로는 구현되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기혼 남성의 역할 몰입 유형은 균형잡힌 몰

입형, 아버지역할 무관심형, 아버지역할 몰입형, 전반적 무관심형이며, 이러한 역할 몰입 유형은 주로 아버지역할 몰입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균형잡힌 몰입형의 사례수가 32%로 가장 많고, 아버지역할 무관심형의 사례수는 28%로 그 다음으로 많다. 아버지역할 몰입이 영유아동기 자녀를 둔 기혼 남성의 역할 몰입 유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직업역할과는 달리 아버지역할 몰입에서 나타난 점수 분포의 다양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직업역할 몰입은 구체화된 행동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의식 차원에서 논의되는 아버지역할 몰입에 비해 훨씬 현실적인 개념이다. 특히 직업역할에 대한 강력한 규범의 영향과 획일화된 직업구조 현실 속에서 남성의 직업역할은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아버지역할에 대한 사회 규범은 불확실하고 구속력이 없으며, 아버지역할을 대표할만한 적절한 역할 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 남성들은 기존의 부양자 역할과 새로운 아버지역할 사이에서 혼동을 경험하고 있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개인이 어떠한 아버지 역할을 수용하는지에 따라 아버지역할을 다르게 정의할 것이고, 사회적 규범이나 이념보다는 개인마다 다른 성장 배경과 가치 체계 등이 이러한 아버지역할을 정의함에 있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므로, 아버지역할 몰입에서의 개인차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 몰입 유형화의 결과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이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역할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또한 가장 이상적인 역할 몰입 유형으로 여겨지는 균형잡힌 몰입형과, 보편적인 한국 남성의 역할 몰입 유형으로 여겨져 온 아버지역할 무관심형에 속하는 사례수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많다는 결과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역할에 대한 이상형과 현실형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사회가 현재 처해 있는 역할 변화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세계, 기혼 남성의 역할 몰입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는 첫 자녀 연령, 직업역할 스트레스, 직업역할 만족, 아버지역할 만족, 아버지역할 수행에 대한 부인의 평가에 대한 지각 수준, 퇴근 후

모임참석 회수, 주말 총 근무시간이며, 이 중에서 첫 자녀 연령, 직업역할 스트레스, 아버지역할 수행에 대한 부인의 평가에 대한 지각 수준, 퇴근 후 모임참석 회수는 다른 유형에 비해 아버지역할 몰입형과 아버지역할 무관심형을 구분하는 데 유용하며, 직업역할 만족, 아버지역할 만족, 주말 근무 시간은 균형잡힌 몰입형과 전반적 무관심형을 구분하는 데 유용한 요인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시간 관련 변수, 역할 경험 관련 변수 모두 유형 분류에 기여하고 있으나, 특히 역할과 관련된 정서적 경험 변수들의 판별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의 아버지역할과 관련하여 정서적이며 주관적인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 연구들(이성희·한은주, 1998; 조선화, 1998; 허선자, 1992; Barnett et al., 1992; Greenberger & O'Neil, 1993, 1994; Grossman et al., 1988; Levy-Schiff & Israclashvili, 1988)과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혼 남성의 역할 몰입 유형 중에서 균형잡힌 몰입형의 생활만족도가 다른 유형보다 유의하게 가장 높고, 아버지역할에 대한 몰입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균형잡힌 몰입형과 아버지역할 몰입형의 생활만족도가 직업역할 무관심형이나 아버지역할 무관심형에 비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Marks, 1977; Marks & MacDermid, 1996; O'Neil & Greenberger, 1994)과 일치하는 것으로, 기혼 남성들에게서 삶 전반에 대한 만족과 의미를 아버지역할, 즉 가족영역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직업역할에서 정체성을 찾고 직업적 성취를 삶의 의미와 목표로 여겨왔던 직업지향적인 이전 세대와는 달리, 아버지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가족영역에서 생활의 즐거움과 만족을 찾으려는 가족지향의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남성의 역할 몰입 유형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역할의 다양한 몰입 수준은 현재 한국 사회 남성들의 아버지역할이 변화해 가는 과도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을 종단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직업 역할보다는 아버지 역할에 더 몰입하였고, 균형잡힌 몰입형의 사례수가 가장 많으며, 직업역할 몰입형이 나타나지 않은 것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들이 30대 남성 집단의 특성이 부각된 것이라면, 이들이 나이가 들어 40대, 50대가 되어도 이러한 특성이 지속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일 것이다. 또한 현재로서는 분명 아버지역할에 대한 의식이나 지각 수준에서는 변화가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행동 변화로까지 이어질지의 여부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Greenberger 등(1988)의 역할 몰입 척도를 그대로 변안하여 사용하였으나 아버지역할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척도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한국의 실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역할 몰입에 대한 합의된 정의와 한국 사회의 문화와 실정에 맞는 역할 몰입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 세계와 가치 체계를 구조화된 질문지만으로 밝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심층면접을 병행함으로써 남성의 역할 몰입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오늘날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아버지역할을 받아들이고 수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있더라도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서, 혹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역할을 포기하고 다시 직업역할에서 자신을 찾으려 하는 아버지들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이러한 남성들을 위한 가족 생활 교육과 부모 교육의 기초 자료로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기현(199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9호, 50-62.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5호, 141-150.
- 김양호(1997). 맞벌이 가족 남성의 역할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변화순·서명선·김홍숙(1995). 여성 계발에 관한 연구-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 이기영·김의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근로자 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1호, 31-46.
- 이성희·한은주(1998). 기혼남성 아버지 역할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2호, 23-39.
- 이숙현(1995). 남성의 취업과 가족 상호작용 : 대기업 사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 29집, 271-289.
- 이숙현(1996). 남성·여성의 일/가족 갈등. *성곡논총* 27(4), 367-400.
- 이숙현(1997). 전문직 남성의 일과 가족 : 교수, 의사를 중심으로.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남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53-80.
- 이현아(1994).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 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장시간노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미나(1994). 남성의 직업 역할과 결혼만족도가 아버지 역할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춘애·박성연(1996).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30.
- 조복희·현은강(1994).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5호, 97-108.
- 조선화(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 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은숙(1997).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 긴장에 대한 대처행동 정도와 지각된 대처효율성 및 관련변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경혜(1997). 아버지상의 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

- 편, 남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33-52.
- 한경혜(1998). 중년기 남성의 역할 중요도와 일/가족 갈등. 가족과 문화 제10집 2호, 93-113.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 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현은강 · 조복희(1994). 부모 역할 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1호, 103-117.
- Amatea, E.S., Cross, E.G., Clark, J.E. & Bobby, C. L. (1985). Assessing the Work and Family Role Expectations of Career-oriented Men and Women : The Life Role Salience Scal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831-838.
- Barnett, R. C., Marshall, N. L., Pleck, J. H.(1992). Men's Multiple Role and Their Relationship to Men's Psychological Distres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58-367.
- Bielby, W.T. & Bielby, D.D.(1989). Family Ties : Balancing Commitments to Work and Family in Dual Earner Househo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776-789.
- Bolger, N., DeLongis, A., Kessler, R.C. & Wethington, E.(1989). Spillover and Crossover : A Contagion of Stress Across Multiple Rol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75-183.
- Burke, P.J. & Reitzes, D.C.(1991). An Identity Theory Approach to Commit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4, 239-251
- Cohen, T.F.(1993). What do fathers provide? - Reconsidering the economic and nurturant dimensions of men as parents. In Hood, J.C.(ed), *Men, work, and family*. Newbury Park : Sage.
- Crouter, A.C., Perry-Jenkins, M., Huston, T.L. & McHale, S.M.(1987). Processes Underlying Father Involvement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31-440.
- Daly, K. J.(1993). Reshaping Fatherhood : Finding the models. In Marsiglio, W.(ed), *Fatherhood : Contemporary theory, Research, and Social Policy*, CA : Sage.
- Elder, G.(1987). Families and Lives: Some Development in Life Course Studies. In Hareven, T. & Plakans, A.(Eds) *Family History at the Crossroads*. Princeton Univ. Press.
- Greenberger, E., O'Neil, R. & Nagel, S.K.(1994). Linking workplace and Homeplace : Relations Between the Nature of Adult's Work and Their Parenting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90-1002.
- Greenberger, E. & O'Neil, O. (1993). Spouse, Parent, Worker : Role Commitments and Role-Related Experiences in the Construction of Adult's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81-197.
- Grossman, F.K., Golding, E. & Pollack, W.S.(1988). Fathers and Children : Predic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2-91.
- Hawkins, A. J. & Belsky, J.(1989). The Role of Father Involvement in Personality Change in Men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Family Relations*, 38, 378-384.
- Hawkins, A. J., Christiansen, S. L., Sargent, K. P. & Hill, E. J.(1993). Rethinking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J. of Family Issues*, 14, 531-549.
- Hughes, D., Galinsky, E. & Morris, A.(1992). The Effects of Job Characteristics on Marital Quality: Specifying Linking Mechanism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1-42.
- LaRossa, R.(1988). Fatherhood and Social Change. *Family Relations*, 37, 451-457.
- Levy-Schiff, R. & Israelashvili, R.(1988). Antecedents of Fathering : Some Further Expl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34-440.
- Marks, S.R. & MacDermid, S.M.(1996) Multiple Roles and the Self : A Theory of Role Balance. *J.*

-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417-432.
- Marks, S.R.(1977). Multiple Roles and Role Strain : Some Notes on Human Energy, Time and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921-936.
- O'Neil, R., Greenberger, E.(1994). Patterns of Commitment to Work and Parenting : Implications for Role Strai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101-118.
- Reitzes, D.C. & Mutran, E.J.(1994). Multiple Roles and Identities : Factors Influencing Self-Esteem among Middle-Aged Working Men and Wome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7, 313-325.
- Simon, R.W.(1992). Parental Role Strain, Salience of Parental Identity and Gender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Distress.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25-35.
- Simons, R.L., Whitbeck, L.B., Conger, R.D. & Melby, J.N.(1990). Husband and Wife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Social Learning and Exchange Model of Parental Behavior,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375-392.
- Small, S.A. & Riley, D.(1990). Toward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Work Spillover into Family Lif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51-61.
- Staines, G.L.(1980). Spillover Versus Compensation :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Nonwork. *Human Relations*, 33, 111-129.
- Stryker, S. & Serpe, R.T.(1982). Commitment, Identity Salience, and Role Behavior : Theory and Research Example. In Ickes, W. & Knowles, E.S.(Eds.) *Personality, Roles and Social Behavior*. NY: Springer-Verlog.
- Stryker, S. & Serpe, R.T.(1994). Identity Salience and Psychological Centrality : Equivalent, Overlapping or Complementary Concepts?. *Social Psychological Review*, 57, 16-35.
- Thoits, P.A.(1991). On Merging Identity Theory and Stress Research.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4, 101-112.
- Thoits, P.A.(1992). Identity Structur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Gender and Marital Status Comparis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5, 236-256.
- Volling, B. L., Belsky, J.(1991).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Infancy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61-474.